

골프코스 조경수 관리

■ **골프장 : 000 골프장**

■ **진단일 : 2019년 06월 26일**

■ **진단자 : 그린과학기술원 원장 김 호 준**

1. 배롱나무 관리

(1) 클럽하우스 앞 퍼팅그린 내 배롱나무 2주

① 현 상태

■ 수세 왕성목 1주와 수세 정상목 1주

- 수세 왕성목 : 노령, 남서방향 줄기 대부분의 피소(皮癬) 피해로 인한 부후, 각지벌레 피해 등으로 생육상태가 극히 불량하여 2019년 4월 3일 수세 회복용 뿌리권 시술을 함. 그 결과 새순 발생량 및 상태, 엽색 등의 수세 회복정도가 극히 우수함.
- 수세 정상목 : ㉠ 노령목이기는 하나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던 맞은편 나무는 시술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새순과 수관밀도가 떨어져 활력비교가 초래됨. ㉡ 그러나 수세가 불량하거나 쇠약정도가 심각한 것은 아니며, 2019년 봄철 기상조건을 참고할 때 비교적 정상적인 생육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. ㉢ 다만 잎의 색깔이 다소 붉게 보이고 있는 것은 잎 가장자리가 붉게 테두리 지는 배롱나무 특유의 특징 때문이며, 그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난 상태임.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수세 왕성목(뿌리권 시술목)

- 향후 별도의 시비는 삼가 할 것. 시비가 거듭될 경우 개화불량 상태가 초래될 수 있음.

■ 수세 정상목 활력강화 시비

- 2차 생육기를 맞아 보다 높은 녹색도, 새순발생 정도 발휘를 위한 시비
- 시비는 뿌리권의 줄기에서 80~90cm 이격된 거리에 나무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지렛대로 30cm 간격의 1차 구멍을 10~20cm 깊이로 뚫고 고휘복합비료(13-) 1개/1구멍씩 시비할 것.
- 1차 구멍에서 20cm 안쪽에 동일한 방법으로 2차 구멍을 뚫고 시비할 것.
- 시비량은 총 30개이며, 과량시비 되지 않도록 ㉠ 시비하기 전 전체 시비량의 비료를 계수한 다음 ㉡ 1차, 2차 시비 거리에 맞게 위치를 정하여 놓고 ㉢ 비료 바로 옆에 구멍을 뚫고 1개/1구멍 씩 시비할 것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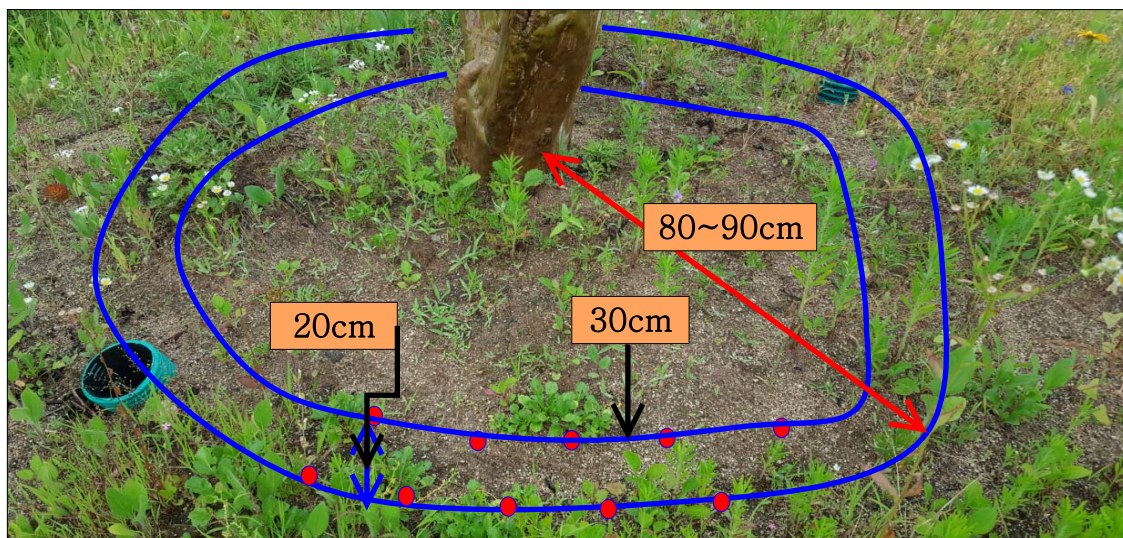
■ 수세 왕성목(2019. 6. 26.)



■ 수세 정상목(2019. 6. 26.)



■ 시비방법



■ 관수 여부

- 비료가 용해, 흡수되도록 시비 후 즉시 관수함이 원칙임. 그러나 비온 직후 또는 비오기 전에 시비한 경우 관수가 필요하지 않음.
- 건장마가 있거나 건조기에는 1회/10일 뿌리권 토양을 조사하여 토양수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호스를 땅에 박아 지중관수 및 유공관 관수를 할 것.

■ 과습 예방

- 퍼팅그린 관수를 위한 잦은 스프링클러 관수는 나무에는 과습 장애를 일으키기 쉬우므로 유념할 것.
- 과습이 우려될 경우 잔디에는 인력관수를 권장함.

■ 기타 관리 주의사항

- **향후 모든 임의적 관리(영양제 주입, 시비, 살충제 및 살균제 시약 등등)는 가급적 금할 것이며, 필요시 『그린과학기술원』의 기술 지도를 받아 실시할 것.**

2. 모과나무 관리

(1) 클럽하우스 앞 퍼팅그린 내 모과나무 1주

㉠ 현 상태

■ 수세 정상

- 노령목이고 줄기가 모두 부후하여 내수피와 목질부 일부가 생존하여 생육하고 있음.
- 이로 인하여 양분과 수분 흡수력이 떨어져 수관부 전체가 확장하지 못하고 녹색도 마저 하락하여 황화 한 상태임.
- 그러나 현재의 줄기 상태에서는 극히 정상적인 생육을 하고 있는 것임.

② 향후 관리방안

■ 활력강화 시비

- 배롱나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비하되 총 시비량은 27개임.

■ 진딧물 발생예찰

- 모과나무에는 진딧물 발생이 잦은 편이므로 이를 예찰하여 발생 시 진딧

물 약을 1주일 간격으로 2회 시약할 것.

- 약량이 과할 경우 약해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표준 약량보다 100~200배 약하게 희석하여 시약할 것.

■ 맹아지 관리

- 줄기 아래부위에서 발생한 맹아는 제거함이 수세회복에 도움이 됨.
- 그러나 줄기의 90% 이상이 부후하여 공동이 생긴 상태이므로 장래 2차 줄기로의 무육도 가능함.
- 2차 줄기로의 무육 여부가 결정되면 그에 맞는 관리를 하여야 함.
- 2차 줄기로의 관리가 결정된 경우 관리방법은 『그린과학기술원』의 기술 지도를 받을 것.

■ 모과나무 현 상태(2019. 6. 26.)

